

『玉照定眞經』의 知命體系

이명재*

<目 次>

1. 서론
2. 天人關係와 命定論의 淵源과 展開
3. 『玉照定眞經』의 知命體系
4. 결론

1. 서론

命이라는 글자는 令과 口로 이루어졌으며, 神과 君主가 구두로 전하는 의향을 사람들이 무릎 꿇고 공손히 받아들여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¹⁾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동양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命定論은 古代 中國哲學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며, 命은 타고 나는 것으로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西周시기까지는 계층 간 身分變動이 거의 없다가 春秋 戰國時代를 지나면서 정치적 혼란과 토지점병 및 상업의 발달로 인해 계층 간 身分變動을 目睹하면서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中國 古代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도 역사적으로 身分變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春秋戰國時代 이후 주요 思想家들은 命을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知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命을 대한 관념도 天人關係와 마찬가지로 하늘 중심에서 사람 중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명리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1) 미주구치 유조 외, 김석근 외 譯, 『中國思想文化事典』, 민족문화문고, 2003, 131쪽 참조.

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知命術도 人間化·객관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사람의 외재적 형상에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따지는 相人術이 먼저 성립되고, 사람이 잉태되거나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는 命理學은 나중에 성립되었다. 命理學에 기반한 術數文化는 儒敎文化와는 달리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유행했던 대중문화의 일종으로서 현재 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命理學의 淵源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學史 위주로 거시적으로 개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시될 당시의 原典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玉照定眞經』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황인희의 『『玉照定眞經』 翻譯 研究』(2012)가 유일하다. 관련 先行研究로는 張新智의 「子平學之理論研究」(2002), 陸致極의 『中國命理學史論』(2008), 杜曉靜의 「宋代術數文獻研究」(2013)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玉照定眞經』을 중심으로 古法命理學의 초기 知命體系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天人關係와 命定論의 淵源과 展開過程을 개관하고, 이어 『玉照定眞經』의 原文과 註釋을 통해 古法命理學의 知命體系를 고찰하고자 한다.

2. 天人關係와 命定論의 淵源과 展開

원시종교사회인 殷代에는 사람과 자연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였으며, 절대 권위를 가진 上帝가 모든 자연현상을 주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天命이라는 말은 『尙書』에 처음 보인다. 이에 따르면 天命은 잘못된 것이 없고, 上帝의 명령으로 人間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

周代에 이르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신비적 관념이 감소된다. 周나라 사람들은 天命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天命을 헤아려 알 수 있다고 믿었다.³⁾ 周나

2) 『尙書』 「大誥」: 天命不僭. (...) 不敢替上帝命.

3) 『尙書』 「大誥」: 爾亦不知天命不易. (...) 其有能格知天命.

라 정권은 “天은 믿기 어렵고 命은 일정하지 않으니 그 德을 일정하게 하면 그 자리를 보존하지만 그 德을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九有는 망할 것이다.”⁴⁾라는 논리와 “하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니 백성이 바리는 것은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⁵⁾는 논리로 殷周革命을 합리화하였다.⁶⁾ 여기서 天命은 일정하지 않으며 天命을 일정하게 하는 관건은 道德이라고 본 것은 殷代의 절대적인 天命崇尙에 비해 진일보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부분 蓍草占을 썼는데, 蓍草占은 卦象을 보고 논리적인 판단을 거치므로 거북점에 비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거북점에서 蓍草占으로의 변화는 하늘 중심 관념에서 사람 중심 관념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周代의 天人關係와 命 관념은 여전히 하늘에 무게 중심이 실렸지만 殷代에 비해 인간의 주체성이 싹튼 시기라고 할 수 있다.

春秋戰國時代에 들어오면 天人關係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확대되는데 그 始原은 孔子이다. 孔子는 宇宙의 근원적인 원리를 人間의 本性에서 찾아 이를 仁이라 하였다. 自然(上帝)에 대한 인간의 자각적이고 실천적 주체로서의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사랑’ 또는 ‘사람다움’으로써 仁을 사용한 것은 孔子부터 비롯되었다. 仁은 초월자에 대한 畏敬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다움’은 自然이나 上帝를 객관화시키는 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⁷⁾ 이는 사랑의 개념을 神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天人關係에서 인간의 主體性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孔子는 “자신을 이기고 禮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고, 仁을 행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다.”⁸⁾고 하면서 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다. 孔子는 사람의 命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서 후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 “道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命이고 道가 장차 폐지되는 것도 命이니 公伯寮 그 자가

4) 『尙書』 「臧有一德」: 天難諶, 命靡常, 常厥德, 保厥位, 厥德靡常, 九有以亡.

5) 『尙書』 「泰誓上」: 天矜於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6) 윤무학, 「天人관계를 통해 본 本原儒敎에서의 禮와 法」, 『유교문화연구』 2, 2000, 108-109쪽 참조.

7) 윤무학, 「天人관계를 통해 본 本原儒敎에서의 禮와 法」, 『유교문화연구』 2, 2000, 111쪽 참조.

8) 『論語』 「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命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⁹⁾라고 한 말은 命의 불가역성을 강조한 것이다. 제자 顏淵이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¹⁰⁾하면서 탄식하고, 제자 罔 백우를 문병하면서는 “命이도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¹¹⁾라고 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命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孔子는 命定論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命을 알지 못하면 君子가 될 수 없다.”¹²⁾는 말과 “죽고 사는 것은 命에 달려 있고, 富貴는 하늘에 달려 있다.”¹³⁾는 말은 命定論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孟子는 孔子에 비해 사람보다는 天 중심의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舜·堯·益임금의 재위기간이 서로 차이가 나고, 그 자식들이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⁴⁾고 하면서 天을 강조했다. 따라서 孔子가 자연과 人間의 관계에서 實踐主體로서의 人間을 중시했다면, 孟子는 西周 이전의 자연중심 세계관으로 다소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孟子는 命에 대해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애써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하늘의 일이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 命이다.”¹⁵⁾고 정의한다. 孟子는 “命이 아닌 것이 없으니 순리대로 바른 命을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命을 이는 사람은 높은 담장 아래에서 지 않으며 그 道를 다하고 죽는 것은 바른 命이고 형벌에 연루되어 죽는 것은 바른 命이 아니다.”¹⁶⁾고 하면서 바른 命을 살기 위해 人道를 다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자연에 대한 人間 主體性的의 확보 노력은 荀子에 이르러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荀子에 의하면 하늘은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으며, 근본에 힘쓰고 쓰임을 절약하

9) 『論語』「憲問」：道之將行也與，命也，道之將廢也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

10) 『論語』「先進」：顏淵死，子曰，噫，天喪予，天喪予。

11) 『論語』「雍也」：命矣夫，斯人也而有斯疾也，斯人也而有斯疾也。

12) 『論語』「堯曰」：不知命，無以爲君子也，不知禮，無以立也，不知言，無以知人也。

13) 『論語』「顏淵」：死生有命，富貴在天。

14) 『孟子』「萬章上」：堯舜益非相距久遠，其子之賢不肖，階天也，非人之所能爲也。

15) 『孟子』「萬章上」：非人之所能爲也，莫之爲而爲者，天也，莫之致而至者，命也。

16) 『孟子』「盡心上」：莫非命也，順受其正。是故知命者，不立乎巖墻之下，盡其道而死者，正命也，桎梏死者，非正命也。

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⁷⁾ 荀子は 天人關係에서 天과 人을 명확히 구분하는 天人相分과 能參을 주장하고¹⁸⁾ 하늘을 따르고 칭송하는 것보다는 天命을 제어해서 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취한다.¹⁹⁾ 따라서 荀子에 이르면 天人關係의 무게 중심은 완전히 하늘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하늘과 사람을 분리한 이상 上帝의 뜻을 파악하여 길흉을 예측하려는 卜筮와 相人術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유행하던 卜筮²⁰⁾와 相人術²¹⁾을 비판했다. 그러나 荀子는 命定命은 인정했다. 그래서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때에 달려 있고, 죽고 사는 것은 命에 달려 있으니 君子는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수양하고 단정하게 행함으로써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²²⁾고 하면서 사람의 노력을 강조했다.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등 하층민으로 구성된 墨家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산과 공동분배를 기치로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을 중시하고 전쟁과 사치를 경계하였다. 墨子는 “무릇 하늘은 숲이나 계곡 등 한적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분명히 지켜본다.”²³⁾고 하면서 天의 인격성을 인정했다. 墨子는 존재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三表를 제시하고²⁴⁾ 鬼神의 존재와 非命을 증명했다. 귀신에 대해 옛 聖王들은 鬼神을 위하여 힘썼고, 귀신을 듣거나 본 사람은 셀 수가 없으며, 천하의 이로움을 도모하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귀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命에 대해서는 역사기록에 命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命을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한 사람이 없으며, 命이 있는 것이 국가나 백성에게 이롭지 않으므로 命은 없다는 것이다.²⁶⁾ 특히 天下를 망하게 하는 4가

17) 『荀子』 「天論」: 天行有常. (...) 彊本而節用, 則天不能貧.

18) 『荀子』 「王制」: 夫是之謂不與天爭職. 天有其時, 地有其財, 人有其治, 夫是之謂能參.

19) 『荀子』 「天論」: 從天而頌之, 孰與制天命而用之.

20) 『荀子』 「大略」: 善爲易者不占.

21) 『荀子』 「非相」: 故相形不如論心, 論心不如擇術.

22) 『荀子』 「宥坐」: 遇不遇者, 時也, 死生者, 命也. (...) 故君子博學深謀脩身端行以俟其時.

23) 『墨子』 「天志」: 夫天不可爲林谷幽門無人, 明必見之..

24) 『墨子』 「非命上」: 故言必有三表, 何謂三表. 子墨子言曰, 有本之者, 有原之者, 有用之者.

25) 『墨子』 「明鬼下」: 古者聖王必以鬼神爲, 其務鬼神厚矣. 又恐后世子孫不能知也, 故書之竹帛傳遺后世子孫. (...) 夫天下之爲聞見鬼神, 之物者, 不可勝計也. (...) 今天下之王公大人士君子, 中實將欲求興天下之利, 除天下之害, 當若鬼神之有也.

26) 『墨子』 「非命上·中·下」: 其在湯武則治, 其在桀紂則亂, 安危治亂, 在上之發政也, 則豈可謂有命哉. (...) 自古以及今, 生民以來者, 亦嘗見命之物, 聞命之聲者乎, 則未嘗有也. (...) 曰命

지 요인 중의 하나로 運命論을 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²⁷⁾ 墨자가 古來의 天이나 上帝 관념을 수용하면서도 非命을 주장한 것은 天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폐해가 심하므로 없어야만 하는 當爲論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道家는 道를 宇宙萬物의 근원으로서 시간적으로 上帝보다 앞서는 개념으로 보고²⁸⁾, 宇宙의 근원적인 원리이며 萬物을 생성한다고 본다.²⁹⁾ 老子는 “天의 그물은 한없이 넓어서 소홀하지만 잃은 적이 없다.”³⁰⁾ 하면서 天의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道는 늘 無爲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³¹⁾ 고 하면서 無爲自然을 강조한다. 莊子도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을 滅하지 말라.”³²⁾ 고 하면서 無爲自然을 강조한다. 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네. 이렇게 극에 이른 것은 命이다.”³³⁾ 고 하였고, “내가 그렇게 된 까닭을 모르는 그렇게 되는 것이 命이다.”³⁴⁾ 고 하였다. 道家에서 天은 인위성을 배제한 自然을 의미하며 命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道家는 기본적으로 人間과 자연의 구분에 반대하면서 人爲를 배제하고 無爲自然을 중시하는 自然命論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前漢 時代 董仲舒(B.C.176~104)는 『春秋繁露』에서 원시종교사회의 上帝 중심의 天 관념에 철학적 이론을 결합시켜 天人感應論을 세웠다. 그의 天 관념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근본을 둔다.³⁵⁾ “하늘은 혈연적으로 사람의 근원이고 하늘과 사람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는 물론 본성이나 정서도 모두 하늘에서

者，暴王所作，窮人所術，非仁者之言也。今之爲仁義者，將不可不察而強非者此也。

27) 『墨子』「公孟」：又以命爲有。貧富壽夭。治亂安危。有極矣。不可損益也。爲上者行之。必不聽治矣。爲下者行之。必不從事矣。此足以喪天下。

28) 『道德經』제 4장：道，沖而用之，或不盈，淵兮似萬物之宗，挫其銳，解其紛，和其光，同其塵，湛兮似或存，吾不知誰之子，象帝之先。

29) 『道德經』제 42장：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

30) 『道德經』제 42장：天網恢恢，疏而不失。

31) 『道德經』제 37장：道常無爲而無不爲。

32) 『莊子』「秋水」：無以人滅天。

33) 『莊子』「大宗師」：求其爲之者，而不得也。然而至此極者，命也夫。

34) 『莊子』「達生」：不知吾所以然而然，命也。

35) 『春秋繁露』「爲人者天」：爲人者，天也，人之人本於天，天亦人之曾祖父也，此人之所以乃上類天也。

기인하며, 사람은 하늘의 副本으로서 사람만이 하늘과 땅과 짝할 수 있다.”³⁶⁾고 하면서 사람과 하늘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또한 “하늘과 땅의 陰氣가 일어나면 사람의 陰氣가 이에 응하여 일어나고, 사람의 陰氣가 일어나면 하늘과 땅의 陰氣도 마땅히 그에 응하여 일어난다.”³⁷⁾고 하면서 天人感應論을 주장했다. 命에 대해서도 개인의 命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天命論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董仲舒의 天人感應論은 孔子이래 진화된 사람 중심의 天人關係에서 원시종교적 天人關係로 회귀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하늘과 사람은 同類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사람보다는 하늘 중심의 天人關係이며, 일반 민중보다는 군주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철학이 아니라 통치이념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後漢의 王充은 董仲舒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王充에 의하면 天은 自然無爲로서 의지도 도덕도 없으며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별도로 작용한다.³⁸⁾ 또한 天地는 氣로 구성되어 있고³⁹⁾ 무한한 자기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⁴⁰⁾ 또한 입과 눈이 없는 하늘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지 없이 무위자연으로 운행할 뿐 서로 感應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¹⁾ 따라서 王充은 인위적 요소가 배제된 자연 중심의 天人關係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命에 대해서는 自然命定論을 주장했다. 즉 사람의 命은 부모가 합궁할 때 자연으로부터 받는 元氣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⁴²⁾ 또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元氣를 물려받아 각각 壽夭의 命을 받아 크고 작은 형체를 이루는데, 형체는 변화될 수 없고 수명은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⁴³⁾고 하면서 命의 不可易性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불행한 환경

36) 『春秋繁露』 「人副天數」: 唯人獨能偶天地。人有三百六十節，偶天之數也。形體骨肉，偶地之厚也。上有耳目聰明，日月之象也。體有空竅理脈，川谷之象也。心有哀樂喜怒，神氣之類也。

37) 『春秋繁露』 「同類相動」: 天地之陰氣起，而人之陰氣應之而起，人之陰氣起，天地之陰氣亦宜應之而起。

38) 『論衡』 「卜筮」: 天不言，則亦不聽人之言，天道稱自然無爲。

39) 『論衡』 「談天」: 天地，含氣之自然也。

40) 『論衡』 「自然」: 氣自變，而人畏懼之。

41) 『論衡』 「自然」: 天動不欲以生物，而物自生，此則自然也。施氣不欲爲物，而物自爲，此則無爲也。

42) 『論衡』 「命義」: 凡人受命，在父母施氣之時，已得吉凶矣。

43) 『論衡』 「無形」: 人稟元氣於天，各受壽夭之命，以立長短之形。 (...) 器形已成，不可小大。人體已定，不可減增。用氣爲性，性成命定。 (...) 形不可變化，命不可減加。

을 만나는 命과 氣의 강약에 의한 命으로 구분하였다.⁴⁴⁾ 한편 王充은 命을 아는 방법으로 相人術을 제시하였다.⁴⁵⁾ 즉 사람의 命은 신체에 드러나는 징후가 나타나고 그 징후는 뼈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命은 부모가 합궁할 때 자연으로부터 받는 元氣에 따라 결정되고 사람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自然命定論을 주장했다. 干支는 원래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가지를 의미한다. 갑골문에 의하면 夏代에 이미 天干을 사용하여 날짜를 기록하였고, 殷代에는 天干과 地支를 배합하여 날짜를 기록하는 干支起日과 干支起時가 시작되었다. 이후 干支起月法, 干支起年法으로 확대되는데 干支起月은 前漢 武帝 太初 元年(B.C.104)에 반포된 太初歷부터 시작하고, 干支紀年은 後漢 章帝 元和 2년(85년) 四分曆에서 시작한다. 干支는 처음에 날짜를 기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으나, 점차 陰陽五行論과 결합되면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符號로 추상화되었다. 干支가 陰陽五行의 符號로 추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管子』부터이며 戰國時代 鄒衍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呂氏春秋』, 『淮南子』, 『春秋繁露』, 『白虎通義』, 『五行大義』를 거치면서 추상화가 완성된다. 干支와 陰陽五行의 결합을 통해 사람이 잉태되거나 태어난 年月日時를 干支符號로 표시하면 하나의 추상화된 干支符號體系가 형성된다. 命理學은 命定論과 陰陽五行論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잉태 또는 출생한 시간의 干支符號를 기준으로 命을 추론하는 知命體系이다. 따라서 命理學은 干支起年法이 시행한 이후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존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淵源은 알 수 없다.

44) 『論衡』 「氣壽」: 凡人稟命有二品, 一曰所當觸值之命, 二曰彊弱壽夭之命.

45) 『論衡』 「骨相」: 人曰命難知, 命甚易知. 知之何用, 用之骨體. 人命稟於天, 則有表候於體. 察表候以知命.

46) 『論衡』 「骨相」: 非徒富貴貧賤有骨體也, 而操行清濁亦有法理. 貴賤貧富, 命也. 操行清濁, 性也. 非徒命有骨法, 性亦有骨法. 惟知命有明相, 莫知性有骨法. 此見命之表證, 不見性之符驗也.

3. 『玉照定眞經』의 知命體系

1) 著者と 成立年代

『玉照定眞經』原文의 著者는 東晉의 郭璞(276-324)으로 알려져 있으나 논란이 많다. 『玉照定眞經』은 郭璞의 原文을 생존연대 미상의 張顒이 古法命理學의 입장에서 註釋한 책이며, 『四庫全書』 「子部」 「術數類」에 수록되어 있다. 『晉書』 「郭璞列傳」에는 郭璞의 저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⁴⁷⁾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郭璞의 著述 目錄에서 『玉照定眞經』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四庫全書』의 主編인 紀昀은 『玉照定眞經』이 『晉書』 「郭璞列傳」 등의 저서 목록에 없고 諸家의 書目에 著錄되지 않았으며 책 중에 江南 方言이 많은 점으로 볼 때 原文과 註釋을 모두 張顒이 쓰고 이름을 郭璞에 가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고 있다.⁴⁸⁾ 이 때문에 『四庫全書』에 실려 있는 『玉照定眞經』에는 原文의 저자란은 비어 있고 '張顒 注'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晉書』 「郭璞列傳」에 의하면 郭璞은 五行·天文·卜筮의 術에 능했고, 수십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활동을 했는데 저서 목록에 없고 著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郭璞의 저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郭璞의 原文을 徐子平이 註釋한 『玉照神應眞經』이 『欽定古今圖書集成』⁴⁹⁾ 「博物彙編·藝術典·星命部」에 수록되어 있고, 저자란에 '郭璞正文, 徐子平註'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原文을 郭璞이 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玉照定眞經』은 문헌적으로 최초의 命理學의 知命體系로 볼 수 있다. 『玉照定眞經』은 이론보다는 命例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古法命理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다. 다만 郭璞의 原文과 張顒의

47) 『晉書』 「郭璞列傳」: 郭璞字景純, 河東聞喜人也. (...) 璞撰前後筮驗六十餘事, 名為洞林. 又抄京·費諸家要最, 更撰新林十篇·卜韻一篇. 註釋爾雅, 別為音義·圖譜. 又注三蒼·方言·穆天子傳·山海經及楚辭·子虛·上林賦數十萬言, 皆傳於世. 所作詩賦誄頌亦數萬言.

48) 『四庫全書總目提要』: 舊本題晉郭璞撰張顒註. 考晉書璞傳不言璞有此書, 隋志唐志宋志以及諸家書目皆不著錄. (...) 張顒亦不知何許人. 勘驗書中多涉江南方言, 疑書與注文均出自張顒一人之手而假名於璞.

49) 清朝 康熙帝 때 시작하여 雍正帝 때 완성한 중국 최대의 백과사전으로서 모두 1만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彙篇 32典 6,109部로 나누어져 있다.

註釋은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玉照定眞經』의 知命體系

『玉照定眞經』은 사람이 하늘과 땅의 조화로 태어나고 命은 출생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 干支符號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먼저 三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原文) 三命이 根元을 회복하면 正道로 추리한다. (註釋) 三命이 均平하면 장수한다. (...) 元이라는 것은 根本이니 天干은 그 氣를 잃지 않아야 한다.⁵⁰⁾

이상의 原文에는 三命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註釋에서도 三命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天干이 三命의 일원임을 추측할 수 있다. 三才에 대한 개념도 보인다.

(原文) 干神의 支가 墓이면 반드시 上下의 吉凶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註釋) 干은 天干이고 支는 十二支이며 下는 納音이다. 三才의 入墓를 분별하여 上下를 자세히 말해야 한다.⁵¹⁾

이상의 註釋에서는 三才는 干을 天干, 支를 十二支, 下를 納音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三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고, 三才의 天干과 十二支 및 納音이 주관하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三元이라는 용어도 보인다.

(原文) 陰陽을 자세히 보고 得失을 나눈다. (註釋)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吉하고 무엇이 凶한지 三元 아래를 자세히 본다.⁵²⁾

50) 『玉照定眞經』: (原文) 三命復元, 推之正道. (註釋) 凡三命均平者久長也. (...) 元者, 本也. 要干不失其氣也.

51) 『玉照定眞經』: (原文) 干神支墓, 須詳上下吉凶. (註釋) 干者天干也, 支者十二支也, 下者納音也. 辨三才入墓, 詳其上下言之.

52) 『玉照定眞經』: (原文) 細視陰陽, 居分得失. (註釋) 何先何後, 何吉何凶, 細視之三元下.

이상의 註釋을 보면 三元은 年柱를 의미하고, 下는 月日時胎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命例를 보면 三元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註釋) 무릇 命이 干을 剋하면 주로 가볍지만 納音을 剋하면 매우 무겁다. 가령 庚子年, 丙戌月, 壬寅日, 戊申時, 丁丑胎이면 이것은 時干이 日干을 剋하고 日干이 月干을 剋하며 月干이 年干을 剋한다. 이는 비록 尊人은 상황지라도 納音五行 身에는 가볍게 끼리는 징조이다. 가령 庚子年土, 壬午月木, 壬申日金, 甲辰時火이면, 이것은 時의 納音이 日을 剋하고, 日이 月을 剋하고, 月이 主를 剋하는데, 이는 말하자면 上下의 尊人들의 수명이 짧고 賤한 징조이다.⁵³⁾

이상에서 年干을 祿, 年支를 命, 年柱의 納音五行을 身으로 하여 看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三元은 三才와 三命 등과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年柱의 年干 祿, 年支 命, 年柱의 納音五行 身으로 본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郭璞은 『玉照定眞經』에서 최초로 四柱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용어를 정의하지 않아 年月日時인지 胎月日時인지 분명하지 않다.

(原文) 三限을 四柱에서 자세히 살핀다. (註釋) 三主와 月日時를 12궁과 합하여 말한 것이다. 25세전은 生月 위주이고, 25세부터 50세전까지는 生日 위주이며, 50세 이후에는 時 위주이고, 15세 이전에는 胎元 위주이다.⁵⁴⁾

이상을 보면 四柱는 月日時胎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註釋도 있다.

(原文) 멀리 他鄉을 떠도는 것은, 외로운 木柱가 많은 물을 만나기 때

53) 『玉照定眞經』: (註釋) 凡命剋干, 主輕, 剋音, 尤重耳. 假令庚子年丙戌月壬寅日戊申時丁丑胎, 此者乃應時干剋日干, 日干剋月干, 月干剋年干也. 此雖傷尊人, 而於身輕忌之兆耳. 假令庚子年土, 壬午月木, 壬申日金, 甲辰時火, 此者應時納音剋日, 日剋月, 月剋主也. 此言上下尊人壽數夭賤之兆爾.

54) 『玉照定眞經』: (原文) 三限見詳於四柱. (註釋) 把三主月日時, 合十二宮言之. 假令二十五前將生月主事, 二十五已後五十之前生日爲主, 五十後時爲主, 十五以前胎元主事.

문이다. (註釋) 木이 地支에 한 개만 있는데 水를 四柱에서 만나는 것으로 이는 표류하는 것이다. 가령 己巳年木이 丙子月水, 癸巳日水, 癸亥時水를 만나면, 水는 왕성한데 木은 적고 뿌리가 없어서 표류한다.⁵⁵⁾

이상에서는 年月日時를 四柱로 해석할 수도 있고, 胎月日時 四柱에서 胎가 생략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玉照定眞經』에서 四柱는 胎月日時인지 年月日時인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年月日時胎에 대한 尊卑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原文)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면 尊과 卑를 분별하여 取해야 한다.
(註釋) 年은 높고 胎가 다음이며, 月이 또 그 다음이고 日이 또 그 다음이며 時는 낮다. 上이 下를 剋하면 順이고 下가 上을 剋하면 逆이니 하극상이 되면 안 된다.⁵⁶⁾

原文에서는 尊卑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註釋에서는 年胎月日時의 순서로 높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張顛은 실제 命例를 들면서는 胎를 중시하지 않았다.

(註釋) 가령 庚子年, 丙戌月, 壬寅日, 戊申時, 丁丑胎이면 이것은 時干이 日干을 剋하고 日干이 月干을 剋하며 月干이 年干을 剋한다. (...) 가령 乙丑年金은 乙이 陰이고, 戊寅月土는 戊가 陽이며, 丁未日水는 丁이 陰이고, 癸卯時金은 癸가 陰이며, 己巳胎木은 己가 陰이다.⁵⁷⁾

이상에서 年月日時胎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地支만으로

55) 『玉照定眞經』: (原文) 遠泛他鄉, 孤木柱逢多水. (註釋) 木有一支, 水逢四柱, 此者飄蓬也. 假令己巳年木, 丙子月水, 逢癸巳日水, 癸亥時水, 水盛木少無根也.

56) 『玉照定眞經』: (原文) 兩分交戰, 識取尊卑. (註釋) 年尊, 胎次, 月又次, 日又次, 時爲卑也. 凡遇上剋下爲順, 下剋上則逆, 不可下剋上也. 若時破胎者, 祖破敗, 破月, 門及父敗, 破日, 身及弟兄妻財敗.

57) 『玉照定眞經』: (註釋) 假令庚子年, 丙戌月, 壬寅日, 戊申時, 丁丑胎, 此者乃應時干剋日干, 日干剋月干, 月干剋年干也 (...) 假令 乙丑年金, 乙爲陰也, 戊寅月土, 戊爲陽, 丁未日水, 丁爲陰, 癸卯時金, 癸爲陰, 己巳胎木, 己爲陰.

命例를 들 때도 年月日時胎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⁵⁸⁾ 또한 日과 時를 묶어 年柱, 月柱, 日時柱로 나열하고 胎柱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다.⁵⁹⁾ 따라서 張顯은 胎를 年 다음으로 중시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실제로는 年月日時胎의 순으로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胎를 생략한 것은 胎月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命의 主體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原文) 丙丁年이고 癸壬日이면 눈병이 있다. (註釋) 丙丁 火人은 사물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의 눈을 본뜬 것이니 꺼리는 것은 壬의 靑이다. 가령 丙子人이 二月 壬子日時이면 이에 해당한다.⁶⁰⁾

이상을 보면 丙丁 火人 또는 丙子人을 命의 主體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年干 또는 年柱를 命의 主體로 삼은 것이다. 또한 年柱의 納音五行을 命의 主體로 삼는 경우도 있다.

(原文) 身과 命이 刑을 당하고 있는데 도리어 靑을 당하면 반드시 일찍 죽고 賤하다. (註釋) 사람의 身과 命이 日時에게 剋破를 당하면 일찍 죽고 賤하다. 가령 辛巳 金人이 午月에 丙寅日時이면, 寅이 巳를 刑하고 아래의 火가 또한 金을 剋하므로 일찍 죽고 賤하다.⁶¹⁾

여기서 身은 年柱의 納音五行을 뜻하고 命은 年支를 의미한다. 또한 年支를 命의 主體로 삼은 경우도 있다.

(原文) 鬼가 生旺하면 나중에 貴氣를 생하여 崢嶸한다. (註釋) 가령 戌人은 먼저 寅이 오고 나중에 甲申이 오는 경우 旺하면 官이 된다.⁶²⁾

58) 『玉照定眞經』: (註釋) 假令 申年, 未月, 戌日, 酉時, 戌胎, 應也.

59) 『玉照定眞經』: (註釋) 假令 辛巳金人, 五月丙寅日時. (...) 假令 壬申金人, 四月, 乙巳日時. (...) 假令 庚午土人, 壬午日時.

60) 『玉照定眞經』: (原文) 丙丁歲, 日癸壬, 眼目之災. (註釋) 丙丁火人能照物, 象人眼目, 忌爲壬所剋, 故此. 假令 丙子人, 二月, 壬子日時應.

61) 『玉照定眞經』: (原文) 身命逢刑, 返剋時, 必然天賤. (註釋) 凡人身命(被)日時克破者, 天賤也. 假令 辛巳金人, 五月丙寅日時, 寅刑巳, 下火又克金, 故爲天賤也.

62) 『玉照定眞經』: (原文) 鬼逢生旺, 後生兮貴氣崢嶸. (註釋) 假令 戌人, 先寅後甲申, 旺者爲官也.

여기서 年支인 戌에 人을 붙여 命의 主體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玉照定眞經』의 註釋에서는 年干, 年柱, 年柱의 納音五行, 年支를 각각 命의 主體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日柱에 자신을 배속하는 내용이 있다.

(註釋) 年月日時胎에서 胎와 月은 집안과 어른을 주관하며 日과 時는 자신과 妻子를 주관한다. (...) 만일 時가 胎를 破하면 조상이 敗하고 月을 破하면 집안과 부모가 敗하며 日을 破하면 自身과 兄弟 및 妻財가 敗한다.⁶³⁾

여기서 張顯은 日柱에 自身을 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日柱를 命의 主體로 삼는 命例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玉照定眞經』에서는 運을 知命體系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본다.

(註釋)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한다. 대운과 소운 및 세운을 보고 相生相剋으로 말한다.⁶⁴⁾

이상 註釋에서 運의 종류로서 大運과 小運 및 歲運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玉照定眞經』에서는 正五行과 納音五行의 生剋關係로 命을 추리한다.

(註釋) 가령 庚子年 丙戌月 壬寅日 戊申時, 丁丑胎이면 이것은 時干이 日干을 剋하고 日干이 月干을 剋하며 月干이 年干을 剋하는 것에 해당한다. (...) 가령 庚子年土, 壬午月木, 壬申日金, 甲辰時火이면 이것은 時的 納音이 日을 剋하고 日이 月을 剋하며 月이 主를 剋하는 것에 해당한다.⁶⁵⁾

첫 번째 註釋은 正五行을 기준으로 生剋關係를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註釋은

63) 『玉照定眞經』: (註釋) 年月日時胎, 視在胎月, 主門戶尊人, 日時主己身妻子也. (...) 若時破胎者, 祖破敗. 破月, 門及父敗. 破日, 身及弟兄妻財敗.

64) 『玉照定眞經』: (註釋) 男子順行, 女人逆行. 視大小運歲限, 相生相剋言之.

65) 『玉照定眞經』: (註釋) 假令庚子年, 丙戌月, 壬寅日, 戊申時, 丁丑胎, 此者乃應時干剋日干, 日干剋月干, 月干剋年干也. (...) 假令庚子年土, 壬午月木, 壬申日金, 甲辰時火, 此者應時納音剋日, 日剋月, 月剋主也.

納音五行을 기준으로 生剋關係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張顛은 正五行과 納音五行의 生剋關係로 旺衰強弱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三命의 旺衰強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계절별 旺相休囚死의 개념이 보인다.

(原文) 四時를 분명히 분별하면 吉凶災福은 저절로 밝혀진다. (註釋) 四時의 吉凶을 알아야 한다. 봄에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는 모두 旺相死囚休를 보고 말해야 한다.⁶⁶⁾

이상은 봄을 기준으로 旺相休囚死를 설명한 것이다. 한편 월별로 旺相休囚死를 적용한 내용도 보인다.

(原文) 丑 가운데의 癸가 서고 甲이 보이면 스님이 된다. (註釋) 丑은 12월의 끝이고, 甲은 十干의 시작이다. 그리고 功曹는 道士라고 말한다. 또한 처음과 끝의 두 天干이 本干을 보고 休囚의 氣를 가지고 있으면 승려나 도사가 된다. 가령 甲寅人이 5월, 癸丑 日時이면 甲에게는 休가 되고 癸에게는 囚가 되어 여기에 해당한다.⁶⁷⁾

이상을 보면 月支를 기준으로 年干의 旺相休囚死를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계절별 旺相休囚死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原文과 註釋은 三命의 均平을 중시한다.

(原文) 三命이 根源을 회복되면 正道로 추리한다. (註釋) 三命이 均平하면 장수한다. 너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범하면 안된다. 너무 지나치면 氣를 내려야 하고 미치지 못하면 氣를 왕성하게 해야 한다. 元이라는 것은 根本이니 天干은 그 氣를 잃지 않아야 한다.⁶⁸⁾

66) 『玉照定眞經』: (原文) 四時明辨, 吉凶災福自然明矣. (註釋) 識四時之吉凶也, 春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皆視旺相死囚休言之.

67) 『玉照定眞經』: (原文) 丑中立癸, 甲見而釋教之人. (註釋) 丑爲十二月之盡也, 甲爲十干之初, 又云功曹爲道士. 又首尾二干見本干, 有休囚氣者, 爲僧道耳. 假令甲寅人五月癸丑日時, 五月甲休癸上囚, 應上文耳.

68) 『玉照定眞經』: (原文) 三命復元, 推之正道. (註釋) 凡三命均平者久長也, 不犯太過不及者也. 又太過者要降氣, 不及者要旺氣也. (...) 元者, 本也. 要干不失其氣也.

이상에서 三命의 均平은 正五行과 納音五行의 生剋關係를 기준으로 三命이 胎月日時와 氣의 均衡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旺相을 강조하는 내용도 나온다.

(原文) 三과 五를 分別하여 旺相하면 이름을 높이지만 死囚休廢이면 비천하다. (註釋) 三을 나누는 것은 三主 즉 天地人 三才를 나누는 것이다. 五를 分別한다는 것은 年月日時胎 중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우려스러운 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旺相하면 吉하지만 死囚休廢이면 흉하다.⁶⁹⁾

여기서는 旺相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에서 강조한 均平和 연결시키면 地支가 旺相한 상태에서의 均平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註釋에는 十二運星의 개념이 보인다.

(註釋) 命造가 變하여 長生, 冠帶, 臨官, 建旺에 있으면 後人이 昌盛한다. (...) 가령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戊癸火의 眞五行이 墓絶之地에 많이 보이면 해당된다. (...) 丙丁이 많더라도 申酉 病死의 地에 이르면 주로 口舌과 病이 생기는 징조이다.⁷⁰⁾

이상을 보면 張顛의 註釋에만 十二運星의 개념 중 일부가 보이는데 陰陽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陰陽同生同死說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原文과 註釋에 地藏干의 개념이 보인다.

(原文) 丑 가운데의 癸가 서고 甲이 보이면 스님이 된다. (註釋) 丑은 12월의 끝이고, 甲은 十干의 시작이다. 그리고 功曹는 道士라고 말한다. 또한 처음과 끝의 두 天干이 本干을 보고 休囚의 氣를 가지고 있으면 승려나 도사가 된다.⁷¹⁾

69) 『玉照定真經』: (原文) 分三辨五, 旺相尊名, 死囚休廢卑賤. (註釋) 分三者分三主也, 天地人三才也. 辨五者, 指年月日時胎中何喜何憂. 若旺相為吉, 死囚休廢為凶憂也.

70) 『玉照定真經』: (原文) 造於旺相後人亨. (註釋) 造化在長生, 冠帶, 臨官, 建旺者, 後人昌盛也. (...) 假令甲子年, 己巳月, 甲己化真土到巳火也. 己卯日, 乙丑時, 庚申胎, 乙庚化真金到丑上墓絶, 故主二姓三名. (...) 為丙丁多而到申酉病死之地, 主口舌生病之兆外.

71) 『玉照定真經』: (原文) 丑中立癸, 甲見而釋教之人. (註釋) 丑爲十二月之盡也, 甲爲十干之初.

이상에서 地藏干을 적용하여 旺衰強弱을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原文과 註釋에는 六神의 개념이 散見된다.

(原文) 食이 있고 鬼가 있으면 官이 貴하다. (註釋) 먼저 食神이 있고 나중에 祿鬼를 보면 官이 되는데 官은 氣가 있어야 한다. 가령 甲子金人, 丙寅月火, 庚辰日金이면 庚은 鬼이지만 먼저 丙이 있어 制하면 官이 된다.⁷²⁾

이상의 原文과 註釋에서 食神制殺의 개념이 확인된다. 註釋에서 형식적으로는 年柱의 納音五行을 命의 主體로 삼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年干인 甲을 命의 主體로 삼아 時干의 庚을 鬼, 月干의 丙을 食神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註釋) 먼저 財神을 보고 나중에 到食을 보면 官印이 된다. 가령 甲子人, 戊辰月, 壬寅日時이면, 壬 食神이 먼저 있는 戊의 制를 받게 되는데, 制는 도리어 印으로 추리하는 說이 된다.⁷³⁾

이상은 형식적으로는 年柱를 命의 主體로 삼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年柱의 納音五行을 命의 主體로 삼고 있다. 즉 甲子の 納音五行 金을 기준으로 日·時干의 壬은 食神이 되고, 月干의 戊는 到食이 되어 食神인 壬을 制하는데, 戊는 甲子の 納音五行 金을 기준으로 官印이 된다는 것이다. 年支를 기준으로 六神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註釋) 天干에서 鬼를 制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官이 된다. 또한 納音이 鬼인데 후에 鬼를 생하면 그 納音은 官이 된다. 가령 戊人이 먼저 寅

又云功曹爲道士。又首尾二干見本干，有休囚氣者，爲僧道耳。

72) 『玉照定眞經』: (原文) 有食有鬼爲官貴。 (註釋) 前見食神後見祿鬼爲官，官要有氣也。假令甲子金人，丙寅月火，庚辰日金，庚鬼也，先爲丙所制，制爲官。假令金人先有水，後見火者然也。干音同推之。

73) 『玉照定眞經』: (註釋) 先見財神，後見到食，爲官印。假令甲子人，戊辰月，壬寅日時，壬食神爲先有戊所制，制卻爲推印之說。

이 오고 나중에 甲申이 오는데 旺하면 官이 된다. 納音은 土이고 木은 鬼인데 鬼가 旺하고 후에 水가 生하면 官이 된다.⁷⁴⁾

여기서 年支인 戌을 기준으로 다른 干支의 正五行과 비교하여 六神을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玉照定真經』에서는 年干, 年柱, 年柱의 納音五行, 年支를 각각 命의 主體로 삼아 正五行과 納音五行의 生剋關係를 통해 六神을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宮位를 기준으로 六親을 배정하는 기록이 있다.

(原文) 각각 앞의 다섯 번째 자리를 추리하면, 조상에 이어 후손까지 모두 알 수 있다. (註釋) 胎 앞의 다섯 번째 자리로 조상을 알고, 月 앞의 다섯 번째 자리로 부모와 집안을 알고, 日 앞의 다섯 번째 자리로 자신과 형제 및 배우자를 알고, 時 앞의 다섯 번째 자리로 자손을 안다.⁷⁵⁾

여기서 註釋을 기준으로 보면 胎는 조상, 月은 부모, 自身·妻·兄弟, 時는 子孫을 주관한다. 이어 年齡을 기준으로 주관하는 宮位를 제시한다. 한편 年齡을 기준으로 주관하는 宮位를 제시한다.

(原文) 三限은 四柱에서 자세히 살핀다. 日時를 보고 子妻를 분별한다. (註釋) 가령 25세 이전은 장차 生月이 주관하고, 25세 이후 50세 전까지는 生日위주이고, 50세 이후에는 時 위주이다. 15세 이전에는 胎元이 주관한다.⁷⁶⁾

여기서 郭璞은 三限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張顯은 25세 이전을 15세 이전과 15세 이후로 구분함으로써 사실상의 四限을 제시하였

74) 『玉照定真經』: (註釋) 若干有制鬼者, 爲官也. 若納音爲鬼, 後有生鬼者, 納音爲官也. 假令戌人, 先寅後甲申, 旺者爲官也, 納音者土, 以木爲鬼, 鬼旺後有水生官也.

75) 『玉照定真經』: (原文) 各推前五, 祖宗連後代皆知. (註釋) 凡胎前五位知祖, 月前五位知父母門戶, 日前五位知己身弟兄妻也, 時前五位知子孫.

76) 『玉照定真經』: (原文) 三限見詳於四柱. (註釋) 假令二十五前將生月主事, 二十五已後五十之前生日爲主, 五十後時爲主, 十五以前胎元主事.

다. 한편 『玉照定眞經』에는 用神의 개념이 註釋에 보인다. 그러나 格局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다.

(原文) 五卦가 상당히 같으면 文武의 尊卑가 스스로 나타난다. (註釋) 水木은 文을 주관하고 火土金은 武를 주관한다. 太歲가 得用하면 높지만 不用하면 낮다. 가령 甲寅水人이 寅午戌 火卦를 득하면 이에 해당한다.⁷⁷⁾

여기서 得用 또는 不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用神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原文과 註釋에는 五行이 배속된 五常을 통해 性情을 판단하는 것을 확인된다.⁷⁸⁾ 五常을 처음 五行에 배속한 시초는 『呂氏春秋』이고⁷⁹⁾ 전체 五常에 五行을 배속한 것은 董仲舒의 『春秋繁露』부터이다.⁸⁰⁾ 또한 神殺을 활용하여 吉凶禍福을 판단한 것이 확인된다.⁸¹⁾ 또한 正五行을 기준으로 文武의 직업 적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郭璞 原文에서 文武의 차별의식이 보인다. 이보다 강하게 文武를 차별하는 내용도 있다.

(原文) 庚辛이 火가 없으면 불의한 군인이나 외로운 여자가 된다. (註釋) 庚辛이 많아 金이 많은데 天干과 地支에 火가 없으면 집안에서 군인이나 외로운 여자가 나온다. 가령 辛未年, 庚寅月, 辛酉日, 辛卯時, 辛巳胎이면 金이 많은데 丙丁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⁸²⁾

77) 『玉照定眞經』: (原文) 五卦頗同, 文武尊卑自顯. (註釋) 水木主文, 火土金主武, 又云若太歲得用者尊, 不用者卑也. 假令甲寅水人, 得寅午戌火卦者, 乃應此卦也.

78) 『玉照定眞經』: (原文) 戊癸炎輪, 多生禮德. (...) 甲己同交, 交之有信. (註釋) 木主仁, 多則不仁. (...) 戊癸真火, 在旺相之地, 主門生禮義德智耳. (...) 真水多, 則主智, 太盛陰淫之象. (...) 甲己真土也, 主信厚而重之記耳.

79) 『呂氏春秋』 「十二紀」: 孟夏之月. (...) 其性禮.

80) 『春秋繁露』 「五行相生」: 東方者木, 農之本, 司農尚仁. (...) 南方者火也, 本朝司馬尚智. (...) 中央者土, 君官也, 司營尚信. (...) 西方者金, 大理, 司徒也, 司徒尚義. (...) 北方者水, 執法, 司寇也, 司寇尚禮.

81) 『玉照定眞經』: (原文) 乙犯天罡, 陰人媒氏. (註釋) 六乙人或乙日, 卯辰全者, 主門戶出陰人, 媒人, 巫婆, 藥婆之象. 假令乙亥人卯日辰時, 應門戶出耳.

82) 『玉照定眞經』: (原文) 庚辛向無火之鄉, 不義軍人孤女. (註釋) 庚辛多或金多, 不見上下火, 皆門戶定出軍人孤女子也. 假令辛未年, 庚寅月, 辛酉日, 辛卯時, 辛巳胎, 金鄉多見, 無丙丁干也. 故應上文.

여기서 郭璞은 ‘不義한 軍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술 당시의 사회가 文官 위주의 貴族社會라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으로는 文官 출신인 郭璞이 王敦(266~324)의 叛亂軍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여 謀反을 만류하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기까지 軍營에서 느낀 武官에 대한 감정이 일부 표출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玉照定眞經』은 문헌적으로 최초의 命理學的 知命體系로 볼 수 있다. 『玉照定眞經』의 知命體系는 干支符號를 기반으로 三命과 四柱 및 運으로 구성된다. 三元은 三才와 三命 등과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年柱의 年干 祿, 年支 命, 年柱의 納音五行 身으로 보고 있다고 유추된다. 郭璞의 原文에 四柱가 나오지만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고, 張顥의 註釋에도 年月日時와 胎月日時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四柱가 胎月日時인지 年月日時인지 불확실하다. 『玉照定眞經』의 註釋에서는 年干, 年柱, 年柱의 納音五行, 年支를 각각 命의 主體로 삼는다. 運의 종류로는 大運과 小運 및 太歲 등 세 가지가 있다. 三命의 旺衰強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旺相休囚死와 十二運星이 제시되어 있는데 十二運星에서는 陰陽同生同死說을 취하고 있다. 『玉照定眞經』에서는 地支가 旺相한 상태에서의 三命의 均平을 중시한다.

六神은 正五行과 納音五行의 生剋關係를 통해 판단한다. 『玉照定眞經』에는 宮位를 기준으로 六親을 배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張顥의 배속에 의하면 胎는 조상을 주관하고 月은 부모를 주관하며, 日은 自身·妻·兄弟를 주관하고, 時는 子孫을 주관한다. 한편 『玉照定眞經』에는 得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用神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格局의 개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또한 正五行을 기준으로 文武의 직업적성을 판단했는데 文武의 차별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가 文官 위주의 貴族社會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五常을 性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

『玉照定眞經』은 年柱의 祿命身 三元과 四柱 및 運을 기본요소로 구성하여 年干, 年柱, 年柱의 納音五行, 年支를 각각 命의 主體로 삼아 正五行과 納音五行의 生剋關係를 통해 인생 전체의 타고난 命을 분석하고, 이어 大運과 小運 및 太歲와의 상호關係를 통해 기간별 命의 변화를 예측하는 知命體系라고 할 수 있다. 이를 天人關係로 보면 運보다는 타고난 命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하늘 중심의 知命體系로 볼 수 있다.

〈參考文獻〉

『尙書』, 『詩經』, 『左氏傳』, 『管子』, 『呂氏春秋』, 『淮南子』, 『春秋繁露』, 『白虎通義』, 『五行大義』, 『荀子』, 『非相』, 『墨子』, 『貴義』, 『論衡』, 『史記』 「日者列傳」, 「孟子荀卿列傳」 「封禪書」 「秦始皇本紀」 「呂不韋列傳」, 『漢書』 「藝文志」, 『北史』 「列傳」, 『論衡』, 『晉書』 「列傳」, 『舊唐書』 「敘祿命」, 『京房易傳』, 『玉照神應眞經』, 『玉照定眞經』, 『李虛中命書』, 『珞琿子賦註』, 『珞琿子三命消息賦註』, 『明通賦』, 『子平三命通變淵源』

- 김학목, 「干支와 陰陽五行의 結合時代」, 『철학논집』 25, 2011.
- 김만태, 「中國 命理原典 『李虛中命書』 고찰」, 『中國人文科學』 62, 2016.
- 문종란, 『『珞琿子賦註』의 命理觀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陸致極, 『中國命理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 이명재, 「徐子平의 命理思想 研究」, 『中國學研究』 66, 2013.
- 이명재, 「『管子』의 陰陽五行論」, 『東洋學』 69, 2017.
- 이명재, 「戰國時代의 陰陽五行論」, 『東方文化와 思想』 3, 2017.
- 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灣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2.
- 張新智, 「子平命學溯源－唐宋命學要籍考辨」, 『弘光人文社會學報』 第14, 2011.
- 朱山, 「命理哲學 批判」,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1, 1995.
- 程佩, 「宋代古法時期命理文獻中的正五行考」, 『湖北民族學院學報』 2, 2013.
- 付洪清, 「子平算命略談」, 『科學與無神論』 3, 2007.
- 田海林, 「鬼谷子與中國傳統文化」, 『中州今古』 2, 2000.
- 王曉毅, 「王充의 命理學體系」, 『孔子研究』 6, 2001.
- 王永寬, 解少華, 「鬼谷子生平事跡新探」, 『黃河科技大學學報』 5, 2009.

- 王易萍, 梁欽佳, 「中國古代算命術探析」, 『玉林師範學院學報』 1, 2009.
杜曉靜, 「宋代術數文獻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王逸之, 「陰陽五行與隋唐術數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楊麗, 「王充『論衡』之術數觀探析」,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劉瑾冬, 「中國術數中的理論文化」, 『文化學刊』 7, 2016.
王逸之, 王興鋒, 「五行與術數」, 『邢台學院學報』 1, 2011.
董向慧, 「徐子平與子平術考證」, 『歷史研究』 2, 2011.
劉國忠, 「徐子平相關事跡辨證」, 『東嶽論叢』 5, 2009.
<http://ctext.org/zh>(諸子百家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www.cnki.net>(中國知網)

〈Abstract〉

The Knowing System of Fate in 〈Okjojeongjinkyong〉

Lee, Myung-Jae

This paper is for closely analyzes the knowing system of The heaven's decrees in ancient Mingli philosophy focusing on 〈Okjojeongjinkyong〉. The original script of 『Okjojeongjinkyong』 can be seen as the first the knowing system of fate in literature. The knowing system of fate in 〈Okjojeongjinkyong〉 consists of three fatal, the four pillars and the fortune based on Ganji signs. The fortune consists of three fortune, the big fortune, the small fortune and the year fortune. The main agent can be seen as the year pillar agents system that makes each main agent. The six providence was assessed through Shengke relation of wuxing and Nayinwuxing with each main agent. The balance of three fatal with the four pillars is regarded important. In which was involved the discrimination between literary and martial arts, and it proves that the society was aristocracy centered on civil servants. The knowing system of fate of 〈Okjojeongjinkyong〉 can be said to be fatalism that has three fatal, the four pillars and the fortune as basic

components, analyzes Shengke relation of wuxing and Nayinwuxing with three fatal as each main agent, judges wealth and honors or poverty and lowliness and demands of one's whole life, analyzes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big fortune, the small fortune and the year fortune, again, and anticipates good or ill luck and fortune or misfortune of each time period. When it'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the relation between the heaven and humans, it's close to that centered on the heaven in the respect that Three fatal and the four pillars given at birth were emphasized more than the fortune.

Key Words: three fatal, the four pillars, the heaven's decrees, the fortune, the relation between heaven and human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